

# 포도원의 품꾼



어느 이른 아침, 한 남자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고용한다. 그는 품꾼들에게 각각 동전 한 닢씩을 주겠다고 말한다.



그날 하루 동안 그는 이 일을 네 번 더 반복했으며, 그럴 때마다 품꾼들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정당한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루가 끝나고, 그는 각 품꾼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일했는데도 그는 그렇게 했다.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은 그가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각자 하루를 시작할 때 동전한 금액을 받았고, 포도원 주인의 친절이 모든 품꾼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 언제가 아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그분의 은혜가 주는 기적을 간증합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지니게 될 신앙이지, 그 신앙을 하루 중 언제, 몇 시경에 얻었느냐가 아닙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포도원의 품꾼”, 2023년 4월 연차 대회(“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1쪽)

##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가 모든 품꾼에게 자비를 베풀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왕국에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라신다. 성약의 길에 들어서거나 다시 돌아와서 구주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성약의 길에 들어서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축복이다!